

## COVID-19로 인한 무용콩쿠르 참여자의 심리변화 사례

김승일<sup>1</sup> · 이민정<sup>2</sup>

<sup>1</sup>중앙대학교 교수 · <sup>2</sup>중앙대학교 박사과정

### A case of psychological change in dance contest participants due to Covid-19

Kim, Seung-Il<sup>1</sup> · Lee, Min-Jung<sup>2</sup>

<sup>1,2</sup>Chung-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change factors that affect the participation in art high school contests of dance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In order to conduct the research, the case study has been applied; the four Korean dance-majoring students in the art high school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contest before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discovered that the students can upgrade their ability as dancers, which reveals that motivation for sustaining dance has been elevated. Second, it is obvious that COVID 19 results in frequently changed competition schedules, student's depression and their heightened cognitive, physical anxiety.

**Key words :** covid-19, art high school, dance-majoring student, competition, anxiety

주요어 : COVID-19,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생, 콩쿠르, 불안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Minjung

E-mail: [anna0097@naver.com](mailto:anna0097@naver.com)

Received: February, 10, 2022 Revised: March, 11, 2022 Accepted: March, 23, 2022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는 경제, 정치, 일상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계의 존립을 흔들고 있다.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치닫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봉쇄령, 공연장 폐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공연예술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여파는 관객과의 직접적 대면과 소통을 전제로 하는 음악이나 연극을 비롯한 공연예술 전반에 확산되었으며, 집합금지나 거리두기 등의 각종 제약에 발이 묶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규모와 무관하게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예술의 경우 이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그 어떤 분야보다도 극심한 고통과 인내를 감수해야만 했다.

실제로, 극장은 균중들이 밀집되는 대표적인 위험장소 중의 하나로 꼽히면서 전면 폐쇄되거나 거리두기 좌석제 운영 등 공연규모가 축소되는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김성태, 조항민, 최부현, 2021).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COVID-19로 인해 총 2500여 건의 예술문화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었으며, 손해는 500억 원대에 이른다(국민일보, 2020.3.19.)다. 이러한 손실은 무용공연예술 및 무용콩쿠르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존에 한국무용계에서는 다양한 무용콩쿠르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질적 성장을 추구하였다(김채현, 2008). 또한 콩쿨 준비과정을 통해 실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스스로 깨우치는 계기를 제공하여(박관정, 2019) 매해 수많은 우수 무용수와 무용가를 발굴한 바 있다(문지혜, 2011). 이처럼 무용가들은 다양한 콩쿠르 대회를 통해 자신의 기량을 한껏 발휘

하여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보기도 하고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박관정, 2019; 이신영, 최용원, 황성우, 2017)에 따르면 무용콩쿠르에 참여하면 긍정심리(자존감, 성취감, 심리적만족감 등)가 높아지게 되어 학습의 동기가 상승하고, 다양한 무대 경험과 준비과정을 통해 실력의 향상 및 자기발전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무용콩쿠르는 무용전공 학생들에게 능력의 향상과 잠재적 발현, 의지적, 자발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교육적 효과를 제공하는 경험 매개체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무용콩쿠르의 정상화가 어렵게 되자 온라인 중계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과 같은 방식을 세우게 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공연과 예술활동으로는 국립극장의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민간기업 네이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연예술 창작산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광장’,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등 문화 부문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문화 콘텐츠가 생성, 유통, 보존되고 있으며, 다양한 공연과 연구, 교육활동의 결과물들이 생성, 관리되고 있다(최지선, 2020).

하지만 무용콩쿠르는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안정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 중간에 영상이 끊기거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속출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으로 입시와 직접적 영향을 주는 대학 주관의 콩쿠르들은 주관기관인 대학에서까지 허가를 하지 않아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그 외 콩쿠르들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비대면 접촉으로 대체하였으나 이 또한 한계가 있어 보였다(국민일보, 2022.01.22.).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무용콩쿠르 개최 수가 약 35% 정도 감소하였다(이상댄스, 2020).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고 무용전공생들의 실력향상 또는 긍정적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콩

쿠르는 일부 취소, 연기를 거듭하며 콩쿠르 참가 준비자들의 스트레스, 불안, 상실감 등의 심리적 부담감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2022년 현재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콩쿠르 참여자들의 참여환경에 심리적 제약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COVID-19 사태로 인한 콩쿠르 참여자의 심리적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탐색해 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심층면담, 문헌조사 방법 등의 다양한 기법을 통한 자료 수집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은 국회도서관, 학술정보원과 각 포털사이트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키워드(COVID-19, 무용콩쿠르, 무용, 무용전공 고등학생, 한국무용 등)를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심층면담으로 연구문제의 결과가 보다 현실적으로 도출되도록 하였다. 문헌자료를 토대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층면담은 비구조적 면담을 사용하여 내용과 방식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면담자와 피면담자의 관계와 면담의 상황적 유동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열린 형태로 진행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자(Huberman&Miles, 1994; Patton, 1990; Jackson, 1992)들의 면접지침을 참고하여 연구 참여 요청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참여자 확인을 받았다. 질문의 유형은 탐색 질문(예, 연령, 무용경력, 무용 시작동기, 춤을 추고 있는 이유, 무용 수행상황에서 지도자에게 느낀 특이한 감정과 기분의 유형), 심층질문(콩쿠르 참여 경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콩쿠르 참여 환경, 코로나 이전과 이후 환경에 따른 심리적 변화)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질문지의 질문들은 개방형 질문으로 만들었으며, 연구자의 용어가 아닌 현장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였다. 공식적인 면담 1회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수회에 걸쳐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담과 전화인터뷰는 2021년 3월~9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각 참여자별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면담을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여 녹음하였다. 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컴퓨터로 옮겨 쓰는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전사하면서 면담자의 의도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후관계 문맥이 맞지 않는 내용은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전사된 내용은 연구자의 각각 별개의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2021년 경기, 전남지역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고등학생 중에 콩쿠르에 참가경험이 있는 예술 고등학교 재학생 4명을 세평적사례선택전략(reputational-casesselection strategy)을 사용하여 선택하였다.

세평적 사례선택전략은 연구자가 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추천으로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각 예술고등학교의 무용 전임교사와 강사들의 추천을 통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무용전공 학생을 선정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연구 참여자	연령	무용 경력	콩쿨 참가횟수	학교
A학생	19	4년	8회	G예술고
B학생	19	8년	8회	G예술고
C학생	18	4년	10회	A예술고
D학생	19	4년	10회	A예술고

## 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원자료를 어떻게 이해, 해석하는 가를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어떻게 분류, 검토, 검증하며 보고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문헌자료와 면담자료를 컴퓨터에 전사(transcription)하여 심층면담 및 문헌자료를 Spradley(1980)가 제안한 영역 분석과 분류 분석을 적용하여 부호화 작업을 한 후 연구문제에 적합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하위 주제들과 4개의 핵심주제(참가동기, 참여의 경험, COVID-19가 가져온 변화, 변화에 대응하기)로 범주화 하였고 최종적으로 나의 콩쿠르 참여, COVID-19와 콩쿠르 2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러한 사례의 전체적인 윤곽을 정밀히 파악하여 기술할 내용을 선정하고 텍스트로 재구성 하였다.

## 3. 자료의 진실성 및 윤리성

본 연구에서는 다각도 접근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각도 접근법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원 자료들을 이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써,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표 2. 면담내용 범주화과정 및 분석내용

상위 범주	2차 범주화 (핵심주제)	1차 범주화 (세부영역)
나의 콩쿠르 참여	참가 동기	첫 콩쿠르 시점과 참가경험 횟수 콩쿠르를 나가는 이유
	참여의 경험	콩쿠르 참가경험으로 오는 깨달음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콩쿠르 준비에 대한 불안감
COVID-19와 콩쿠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연습량 저조 및 불안감 코로나19로 인한 콩쿠르의 변화
		변화에 대응하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음가짐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적인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전략으로 다각도 접근법, 동료연구자들과의 협의, 연구참여자 검토와 지속적인 개입, 연구의 전체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관찰과 수집, 연구자 스스로의 방법적 반성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Spradley(1975)가 제시한 연구윤리헌장의 내용에 따라 자발적 동의에 의한 기밀유지와 상호 호혜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 Ⅲ.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무용 전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COVID-19 사태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콩쿠르 참여자의 심리적변화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8개 세부영역, 4개 핵심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첫째, 나의 콩쿠르 참여, 둘째, COVID-19와 콩쿠르 2개 차원으로 범주화 하였다(표 2 참조).

### 1. 나의 콩쿠르 참여

무용콩쿠르는 우수한 무용수를 선발하고 시상함으로써 무용수에게 무용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킨다. 또 해마다 발전하는 실기능력의 수준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무용능력의 방법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결과인 ‘나의 콩쿠르 참여’에서는 참가동기와 참여경험 2개의 핵심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장에서는 그 결과를 선행연구와 함께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참가 동기

무용콩쿠르는 무용하는 사람들이 대회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보고 춤 기량의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일반인들에게 무용을 널리 알려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이태상 2004).

조선희(2008)는 무용콩쿠르 참가를 위한 작품을 구상하고 참가 준비과정에서 최고의 기량을 연마하는 것으로 인해 콩쿠르는 최고의 실력을 향해 정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새로운 작품구성에 따른 새로운 움직임들 함께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무용콩쿠르를 통한 인재 발굴은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콩쿠르를 통해서 자신의 기량발전에 대한 기회를 주어지게 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는 매우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본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다방면의 콩쿠르에 많이 나가면서 무대 경험을 많이 쌓고 콩쿠르마다 무대 크기도 다르고 장소도 매번 바뀌고 - 무대가 내 작품의 동작을 어떻게 그 크기에 대해 맞춰서 쓸지에 대해서 고민이나 생각들을 몸소 겪으면서 무대 센스나 이런것들을 많이 늘릴 수 있고 입시 때 긴장감을 없애기 위해 많이 나갈려고 하는거 같아요.(A참여자, 2021.7.21)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나가는 거였는데 무용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술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대에서 긴장하지 않고 실수했다라도 센스있게 대처하는...경험치를 많이 쌓고 그래서 쌓기 위해서 참가하게 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입시에서 떨림?긴장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유도 있어요.(B참여자, 2021.7.22)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A참여자 와 B참여자는 콩쿠르를 나가는 이유에 대해 콩쿠르를 많이 참가하면서 무대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입시 때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 참가를 한다고 알 수 있다. C참여자는 콩쿠르 참가를 하면서 다른 경쟁자들을 보며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다른 참가자들의 좋은 부분들을 배우고 또 다른 시점에서 바라 볼 수 있어서 참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승일, 박문성(2021)은 무용전공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콩쿠르는 객관적 피드백의 기능을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참여자들도 콩쿠르 참가를 통해 본인의 춤을 계속해서 체크 할 수 있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갈고 닦는다는 마음으로 참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콩쿠르 무대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성취감과 즐거움 함양시키고, 다양한 기술 습득과 자아성취가 전공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규진(2020)의 연구 결과와 대회 참여가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태호, 김상국(2012)의 결과와 무용콩쿠르 참여를 통해 때론 지치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내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극복 의지가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염계화(2020)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 2) 참여의 경험

무용콩쿠르 참가 이후에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경험하였다. 그중 무용콩쿠르 참가함으로써 느낀 긍정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콩쿠르 전에는 거의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신대로만 했었는데 콩쿠르를 나갔다고 하면 제 스스로가 무엇이 부족한지 더 알게 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부족한 부분을 깨달은 부분을 합쳐서 제가 연습을 더 하니 실력이 조금은 더 늘었던거 같아요. 제가 몸소 느끼고 무대를 내려오니깐... 그래서 그런지 다음 콩쿠르 때 그 전보다 제 기량을 더 안정감 있게 하고 내려온거 같아요...(A 참여자, 2021.7.21)

돌아볼 수 있다는점? 언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겠어요...저만의 춤의 감성을 찾으면서 연습실에서 할때랑 무대에서 할 때 느껴지는 저의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 리구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많이하고 칭찬해줄진 또 해주고..자신에게 자꾸 파이팅을 주는거죠...(B참여자, 2021.7.22)

콩쿠르 무대에서 구도나 시선을 맞춰야 해서 시야가 많이 트였던 거 같아요.(C참여자, 2021.7.22.)

연습실에서 춤 추었을 때에 보다 콩쿠르장에서 춤을 추었을 때 제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콩쿠르가 끝나고 영상을 보고 잘못된 점을 찾고 다른 참가자들을 보고 저런 부분은 제가 닦아야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나가기 시작한거 같고 콩쿠르를 나가면 일단 계속해서 이것에 열정을 쏟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고 예를 들어 일상적인 부분에서 지치고 힘들 때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됨으로써 극복하게 되는거 같기도 해요.(C참여자, 2021.7.22.)

처음에 동작을 받고 연습을 할때는 소심해지고 자신감없고 그랬는데 콩쿠르를 나가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하나까 자신감을 얻고 나서는 그 이후에 연습할 때는 과감하게 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겁먹지 않고...(D참여자, 2021.7.24.)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들은 무용콩쿠르를 통해 자신을 돌아

보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연습을 하니 실력이 더 늘었고, 무대 경험을 통해 시야가 많이 트이고 자신감을 얻게 되어 그 전에는 소심하게 동작을 했다면 참가 이후에는 과감하게 해보는 등 본인이 몸소 깨닫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실력이 많이 늘게 되었다고 알 수 있다.

A참여자는 콩쿠르를 통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연습을 충분히 해서 다음 콩쿠르 때 자신의 기량을 많이 펼칠 수 있다고 알 수 있다. B참여자는 본인에게 어떻게 해야 더 성장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반성도 많이 함과 동시에 칭찬도 해주면서 다음 콩쿠르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고, C참여자와 D참여자는 콩쿠르 무대를 통해 춤에 대해 시선이 넓어지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참여자들이 그동안의 익숙함에 모르고 있었거나 잊고 있던 춤에 감성을 되찾고 본인만의 움직임을 찾고 무용콩쿠르 무대에서 쾌감과 짜릿함을 느낌으로 인해 잃었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나영(2014)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 2. COVID-19와 콩쿠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접촉과 현장성이 중심이 되는 공연예술은 COVID-19 발생으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연과 행사를 취소시키거나 거리두기 객석제 혹은 비대면 공연을 시행하였다.

### 1) COVID-19가 가져온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은 의료보건, 공공안보, 경제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위협을 끼쳤으며, 미디어에서 연일 보도되는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인해 대중은 지속적인 두려

움과 불안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코로나의 빠른 확산세로 인하여 대중은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개학연기 등의 사회적 단절 및 고립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 두려움, 분노, 외로움, 좌절감, 슬픔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전진아, 이지혜 2020).

그냥 저의 나태해짐으로 인해 살이 찌서 거울을 봤을 때?...그때 자존감도 줄어 들고...(A참여자, 2021.7.21)

그냥 정말 나태해진거같아요.. 무언가가 계속 푸쉬가 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런것들이 줄어들니까 살도 많이 찌고...제가 봐도 못나보이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래서 춤을 추면서 올라갔던 자존감이 다시 낮아지는 거 같고....(B참여자, 2021.7.22)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고 그걸 해소하려고 뭘 계속 먹고 살찌고...(C참여자, 2021.7.22)

일상적에서는 몸이 많이 굳었던 거 같아요. 사람들도 안만나고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사회성도 다시 떨어지는 거 같고 살도 찌고...저의 단점인 골반이 다시 말리거나...(D참여자, 2021.7.24.)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적인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태해짐으로써 우울해지고 그걸 해소하려고 계속 먹다 보니 살이 찌게 되어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이 못나 보여 춤을 통해 올라갔던 자존감이 다시 낮아졌고 그로 인해 저절로 사람들도 만나지 않게 되어 사회성도 떨어지게 되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고립감, 소외감, 사회적 단절감 경험에 따른 우울감, 불안감

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동훈 외(2020)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는 일상적 문제뿐만 아니라 COVID-19가 공연예술계에도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특히나 대면접촉을 전제로 하는 공연예술이 COVID-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수의 문화시설이 중단돼 작년 3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공연장은 문을 닫게 되었고, 그에 따른 공연예술계에 포함되는 무용계도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무용콩쿠르도 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콩쿠르 일정이 COVID-19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대학콩쿠르를 주로 많이 나가는데 그게 줄면서 콩쿠르 자체를 거의 1년에 원래 8개였으면 2, 3개 정도로 줄면서 무대에 서 볼 경험도 많이 줄었고 대학 콩쿨 자체가 내가 이 대학을 가고 싶어서 춤을 보여주러 나가는데 개최횟수가 줄어들니까 전체적으로 불안해졌어요.(A참여자, 2021.7.21)

콩쿠르 일정이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다가오는 콩쿠르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일정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정해지고 어쩔때는 연기되거나 전날에 취소가 되기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아서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면서도 나태해지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죠...그리고 보통 1년에 10개 정도 참가를 했다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절반 정도로 줄은거 같아요...(B참여자, 2021.7.22)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과 이상댄스(2020)에 따르면 무용콩쿠르 개최 수는 COVID-19 발생 이전 대비 138개에서 90개 정도로 줄어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참여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COVID-19

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1년에 8~10개 정도 콩쿠르를 참가를 했다면 이후에는 5~6개 정도로 줄었다고 하였다.

더군다나 무대에 서 볼 경험이 줄면서 가장 중요한 대학 콩쿠르까지 개최되지 않게 되어 불안함이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위의 인터뷰와 같이 콩쿠르 참여 횟수가 줄었다면 연구참여자들의 연습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아래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확실히 연습량이 줄었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레슨도 많이하고 더 연습량도 많았는데 반대로 줄어드니까 콩쿠르인데..이렇게 해도 되나...너무 불안하고 무대에 섰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 걱정도되고... 원래는 하루종일 춤을 뿔었는데 하루에 한시간 반? 이렇게 하기도하도...80%가 줄었었어요...(A참여자, 2021.7.21)

레슨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 터지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연습량이 저는 50%이상은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는 학교 홀도 사용을 하지 못해서 레슨을 아예 못했었고 당장 작품 순서도 다 못나갔는데... 너무 너무 불안했죠... 입시는 과연 불수는 있는건가 하구요...(B참여자, 2021.7.22)

코로나 때문에 연습량이 40% 정도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콩쿠르를 바로 준비를 해야 해서 기본기보다는 작품위주로 연습을 하다보니 기본기가 많이 줄었어요...(C참여자, 2021.7.22)

콩쿠르를 준비하기전에는 원래 재동작이나 기본을 중점으로하고 작품을 했었는데 콩쿠르가 다가오면서는 기본보다는 아무래도 작품위주로 연습을 하다보니 작품은 그때 확 느끼는거같고 감정이나 근력도 그때 높아지는데 콩쿠르 준비할때는 작품위주로 하다보니 기본이 조금 줄어드는거같아요.(D참여자, 2021.7.24.)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무용 콩쿠르 개최 횟수가 줄어들어서 자연스레 연습량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COVID-19가 발생하고 초반에는 방역수칙 때문에 학교 등교 금지에 생활체육 시설이 일부 중단되는 바람에 수업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연습 집중도와 몰입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알 수 있다.

즉, 연습을 지속적으로 유지 됨으로 인해 C, D참여자들은 콩쿠르 기간에 기본기와 콩쿨 작품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데 연습기간이 줄어들어 콩쿠르 준비기간이 줄어들어 기본기를 다듬지 못하고 콩쿨 작품 연습만 하여 전체적인 춤의 균형이 깨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백동기(2002)의 연구에서 스포츠 선수들은 경쟁하는 경기장면에서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는데 이는 적절한 심리적 불안의 관리 및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체력과 기술 능력에 의해 경기력의 극대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무용콩쿠르가 개최가 되었어도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다. COVID-19가 터지고 초반에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방역수칙으로 인해 공연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대면 콩쿠르가 비대면으로 바뀌며 영상심사로 대체하기도 하였고, 대면으로 콩쿠르를 진행을 하더라도 많은 제약적인 상황으로 참가자들은 불편함을 겪게 되었고 그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함을 피할 수는 없었다.

어떠한 콩쿠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거나 영상심사로 바뀌거나 했고 영상심사로 참가를 해도 영상을 찍을 장소도 마땅치가 않았구요... 참가비 따로내고 영상찍을 훌비 또 따로내기도 하고...(A참여자, 2021.7.21)

원래 모든게 대면 콩쿠르였는데 영상심사로 바뀌거나 일주일전에 갑자기?그럼 또 영



상을 찍을 홀을 빌려야하고 극장을 빌려야 하고..하지만 그런것들을 저희만 하는게 아니잖아요...조금만 늦게 예약하려고하면 이미 차있고...(B참여자, 2021.7.22)

이러하듯 대면콩쿠르가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연습실은 포화상태가 되었고, 한동안 연습실 빌리는 전쟁같은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점차 COVID-19 확진자 수는 줄게되었고 공연장 폐쇄가 풀리자마자 콩쿠르는 곧장 대면으로 개최를 하였다. 그러나 방역수칙으로 인해 콩쿠르장에 참가자 한 명만 입장 할 수 있었고 지도자 및 부모님들은 밖에서 무대를 끝내고 내려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게 되었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어수선했던 콩쿠르장 분위기와는 달리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끼고 문진표를 작성하며 인원을 나누어 대기 입장을 하는 등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선생님들께서 무대 올라가기전까지 동작도 봐주시고 하면서 내적으로도 안심이 된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가고는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는 그게 안되고 혼자 대기하고 혼자 무대서고 관객도 없어서 콩쿠르 같지 않은 콩쿠르의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모두 다 혼자 했어야 하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그 큰 무대에서 나 혼자 춤추고 내려와야 하는데 나의 편이 보고있다는 그러한 안도감? 으로 인해 좀 더 맘 편하게 춤추고 내려왔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었어서 무대 기에 놀리기도 했었고 혼자 의상입고 준비하다 보니까 뭘 빠뜨리지 않았을까.. 이러한 모든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서 무대에서 춤을 췄을 때도 그전에 불안감이 가지지 않은 상태로 춤을 추니까 되던 것들도 안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많았었어요.....(A참여자, 2021.7.21)

그 전에는 무대에 올라가기전에 선생님께서 마지막 체크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도 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는데 그러지 못해서 평소보다 더 긴장이 돼서 연습 때보다 더 못하고 내려올 때도 많고...(B참여자, 2021.7.22)

보호자들이나 지도자들은 대기실에 못들어가고 저만 들어가서 혼자 무대에 올라갔다 내려오고...되게 복잡복잡했던 콩쿠르장도 한산하고...(C참여자, 2021.7.22.)

대면콩쿠르에서는 대부분의 콩쿨에서는 선생님과 학부모도 관객석으로 못들어가는 콩쿨도 있었는데 저 혼자 의상입고 몸풀고 대기하기도 했었고 제가 무대를 췄을 때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안도감? 그런것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선생님에 대한 믿음으로 춤을 추고 무대를 내려왔었는데 아무도 없고 심사위원들만 계시고 하니까 넓은 무대에 저만 혼자 있는 무인도 같은 느낌?... 저 혼자 집중해서 하고 내려와도 되지만 춤은 저 혼자 추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게 저의 의사표현을 전달을 해야하는데 못하니까 100% 집중을 하지못하고 내려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거 같아요...(D참여자, 2021.7.24.)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들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있었고 콩쿠르 현장 분위기는 사람들이 복잡복잡한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고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콩쿠르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무대에 오르기 전에 무용지도자와 학생이 함께 콩쿠르 현장에 있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갔던 반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보호자들은 공연장에 출입이 금지되어서 참가자들은 홀로 무대에 서야만 하였다(박연지, 김영재, 2019).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참가자들은 넓은 무대에

본인만 혼자 있는 무인도 같다고 느꼈고 갑작스럽게 변화된 상황들에 적응이 안되어 100% 만족을 하지 못하는 무대들이 많았다고 하였다. 이로 인한 연구참여자들의 불안함은 가장 중요한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콩쿠르는 개최되지 않았고, 무용을 하면서 얻었던 목표성까지 잃기 직전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저는 거의 대학콩쿠르를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개최되지 않아서 허무하고 2021년도인 이번년도에도 같은 상황일거같은데 제가 목표대학을 갈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C참여자, 2021.7.22)

일단 불안감이.....고등학생이고 입시가 다가오기도하는데 그래버리니까 정말 많이 실력적으로도 걱정이 되고 마음은 급한데 집에있으니까 몸이 쳐지고 계속 쉬니까 전처럼 하루종일 춤을 못출거같은...(D참여자, 2021.7.24.)

C, D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불안한 콩쿠르 상황들로 인해 입시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보통 대학콩쿠르에 나가는 이유는 본인의 목표 대학에 출전을 하여서 수상을 하게 되면 대학교 진학시 수시입학의 기회나 가산점을 얻을 수 있고, 무대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부족한 부분을 더 알게 되고 입시 때와의 분위기, 상황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 수 있는 경험들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때문에 무대 감각을 잃어버리고 입시 때 과연 떨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전공자의 대회전 경쟁상태 불안에서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이 18~19세가 가장 높다는 선행연구 김현숙(2008)의 연구가 위의 인터뷰 내용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 2) COVID-19 극복을 위한 마음가짐

연구참여자들은 COVID-19로 인해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또 다른 도약을 꿈꾸며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고, 힘든여건 속에서도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도 그렇고 방역수칙 때문에 제한들이 걸려버리니까 내가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차라리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던지 조금이라도 연습량을 늘려야 할 거 같아요.. 잠을 조금 줄여서라도...(A참여자, 2021.7.21)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이러한 상황들이 닥쳐서 제가 적응하지 못하고 저 자신한테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러한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뭉가는 계속 진행은 되는거니깐... 일단 연습량을 가장 많이 늘려서 시간이 짧잠히 나는대로 무조건 연습을 죽도록 할거고 이번년도에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대학콩쿠르들이 개최가 되길 바라지만 안되더라도 주춤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아서 입시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B참여자, 2021.7.22)

A연구 참여자는 방역수칙으로 인해 짧아진 연습시간에 대한 걱정이 앞서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면서 아침 일찍 연습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연구 참여자 역시 더 이상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 주춤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연습량을 더욱 늘려 자신의 입시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입시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받지 않겠다는 내면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잘 극복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세계는 With Corona를 선언하였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의 종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공존하고 회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무용콩쿠르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주최자나 경연자 모두 상황에 따른 대처 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로 인한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생들의 콩쿠르 참가에 어떠한 심리적 변화 요인이 있는지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콩쿠르 참가 경험이 있고 현재 재학 중인 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 전공생 4명을 선정하여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한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콩쿠르 참여를 통해 무용수로서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극복하게 된다면 우수한 무용수로서 능력을 갖게 되고 심리적 만족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성취감을 갖게 되어 무용 활동을 지속하는데 큰 동기가 되었다고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COVID-19로 인해 변해져 버린 일상과 이로 인한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생김으로 인해 연습량 저조와 콩쿠르 일정이 불안정해지면서 콩쿠르 참여 횟수 감소가 되면서 오는 우울감과 불안함으로 전체적인 춤의 균형이 깨지면서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이 높아진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무용 콩쿠르는 아직까지 COVID-19와 같은 질병상황이나 특수한 환경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매우 미

비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실제적 시스템 구축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대상자를 한국무용전공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폭을 확장해서 연령대의 다양화와 지도자와 관계자를 통한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김규진(2020). 무용콩쿠르 참가동기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한무용학회지* 78(6), 13-56.

김나영(2014). *대학생 무용콩쿠르 참여에 의한 무용 활동변화와 직업군 선택 요인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김성태, 조항민, 최부현(2021). 코로나시대 비대면 공연예술의 현실과 과제 -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11), 485-498

김승일, 박문성(2021). 예술고등학교 무용강사의 온라인 수업 활동 탐색. *한국무용학회지*, 21(1), 29-39.

김채현(2008). *춤, 새로 말한다 새로 만든다*. 서울: 사회평론

김현숙(2008). *한국무용 전공자들의 대회 전 경쟁 상태 불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청주.

민애경, 김승일(2018). 한국무용전공자의 콩쿠르 입상에 미치는 자기 심리 요인. *무용예술학연구* 71(4), 27-40.

박관정(2019). *무용전공대학생의 무용콩쿠르 참가 경험이 자기계발동기와 전공지속활동 의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박관정, 이해준, 조진희(2021). 무용전공대학생의 콩쿠르 참가경험이 자기계발 동기와 전공

- 지속활동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학회지** 20(4), 101-113.
- 박연지, 김영재(2019). 무용콩쿠르에서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및 대응. **한국무용학회지** 19(2), 107-116.
- 백동기(2002). 기계체조경기 상태불안 검사지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3(3), 99-109.
- 염계화(2020). 무용열정수준에 따른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자기관리와 심리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학회지** 20(2), 185-194.
- 유주희(2019).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중 계면조 악조의 계면길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윤서진, 장태석(2020).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지속성에 미치는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 위계적 회귀분석. **한국무용학회지** 20(2), 095-103.
- 이동훈, 김예진, 이덕희, 황희훈, 남슬기, 김지윤(2020).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감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32(4), 2119-2156.
- 이신영, 최용원, 황성우(2017). 무용전공대학생의 콩쿠르 참여시 발생하는 동기와 불안 및 성취간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34(2), 1-15.
- 이태상(2004). **동아무용콩쿠르가 한국무용계에 미친 영향: 일반부 현대무용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전진아, 이지혜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마음건강 돌봄 현황 및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375, 1-8.
- 조규청(2002). 한국 기독교 정신세계와 스포츠의 예술성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3(4), 565-574
- 조선희(2008). **국내 무용콩쿠르의 유형별 현황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최지선(2020). 공연예술 비대면 심사에 관한 사례 연구`2020년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를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학회** 38(4), 215-232.
- 이상댄스 (2020).
- 강원일보 (2021. 07. 28)
- 국민일보 (2020. 03. 19)
- 국민일보 (2022. 01. 22)
- 연합뉴스 (2020. 10. 24)
- 중도일보 (2021. 08. 06)
- 서울신문 (2020. 04. 09)
- 프레시안 (2020. 08. 31)